

한국타이어, 북미시장 공략 강화

2015년 판매 1위 목표 ... 중국·동남아 및 미국에 신규공장 검토

한국타이어(대표 서승화)가 2015년에 북미시장에서 판매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10월25일 “2015년 북미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최근 내부 전략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은 10월 25-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미주본부 마케팅 전략회의에 참가해 전략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타이어는 2009년 북미시장 점유율이 4%로, Goodyaer(14%), Michelin(8%), Bridgestone(7.5%) 등에 이어 7위에 올랐다.

2015년 북미시장 1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신규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26>